

도쿄 요츠야선교회와 재일 한인교회: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회의 형성 (1924-1960년대)*

백종구(서울기독대학교)

I. 서론

재일 한인교회는 개척의 주체에 따라 한국 교회와 교회연합기구가 파송한 선교사에 의해 개척된 교회들과 외국 교회의 후원과 지원을 받은 교회들로 구분할 수 있다.¹⁾ 전자의 교회의 시초는 1909년 장로교 한석진 목사가 개척한 유학생 교회이며, 후자의 첫 교회는 1927년 캐나다 장로교회의 후원과 지원을 받은 교회들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미카와시마(三河島)

* 본 연구는 「케이씨대학교 교수논문집」 18(2018), 178-201에 실린 글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임.

1) 한인교회들을 후원하고 지원한 외국 교회는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침례교, 영국 성공회, 미국 북 장로교, 미국 남감리회 등이다. 이상규, “한국교회의 재일(在日) 한국인 선교와 한인교회의 기원,” 「교신선교」(2001), 66.

조선기독교교회(이하 미카와시마교회)는 후자와 유사한 교회로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와 연계된 제일 선교회의 지원과 전도에 의해 1926년 8월 개척되었다.

국내에서 미카와시마교회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기독교신보」, 오윤태 『동경교회72년사』, 김찬영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1864-1936』이다.²⁾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른 연구는 유은식(兪恩植)의 「東京福音教會 70年史(1924-1959)」와 백종구의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아선교회를 중심으로”이다.³⁾ 기존 연구 가운데 유은식의 「東京福音教會 70年史(1924-1959)」는 미카와시마교회를 중점적으로 다룬 첫 연구로, 「도쿄 크리스천」(*Tokyo Christian*, 1901-1941)과 일본 측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시점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924-1959년까지 미카와시마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최근 이상훈은 “在도쿄 조선교회들의 형성과 접점-192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에서 미카와시마교회가 도쿄(東京) 소재 타교단 한인교회들과의 교류 현황을 조명하였다.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자료에 1941년 이후의 「도쿄 크리스천」과 한국 측 자료를 추가하여 미카와시마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이다.⁵⁾

-
- 2)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1864-1936』(논산: 한성신학교, 1991), 70.
 - 3) 유은식(兪恩植)의 「東京福音教會 70年史(1924-1959)」는 미간행 제본문서로 연구자는 최근 이 문서를 오사카(大阪)성경신학교 교장 다이키 기시모토(岸本 大樹)로부터 입수하였음.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아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2012), 123-147.
 - 4) 이상훈, “在도쿄 조선교회들의 형성과 접점-192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기독교사국제컨퍼런스 발표논문, 2018년 12월 1일); 동 발표논문은 수정, 보완되어 「신학논단」에 실렸다. “조선장로회와 감리교에 의한 재도쿄 조선인에 대한 공동선교-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96(2019), 197-222.
 - 5) 미카와시마교회에 대한 1차 자료는 제2차 세계대전 ‘동경대공습’으로 소멸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1차 자료는 미국 내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도쿄 크리스천」이다.

특히 동 교회의 설립과 발전, 교회적 특성, 그리고 타교단 한인교회들과의 협력과 교류에 주목할 것이다. 본 연구가 재구성할 시기는 미카와시마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한 1920년대 전반부터 요츠야선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지역 한인교회가 되는 1960년대 까지 이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도쿄 한국인 선교와 한인교회의 형성과정을 개관하고, III-V장에서 미카와시마교회의 역사를 세 시기, 즉 1924-1926년, 1927-1936년, 1937-1960년대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이다.

II. 도쿄 한국인 선교와 한인교회의 형성

일본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는 1909년 한국 장로교 독노회가 일본에 파견한 한석진이 도쿄에 설립한 유학생 교회였다. 1912년부터 유학생 교인들을 포함한 제일 한국인 선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합의 아래 공동으로 관리되고 교회 명칭은 ‘연합예수교회’ (Union Christian Church, 이하 동경연합교회)로 정해졌다.⁶⁾ 동경연합교회의 목사는 1944년까지 1-3년 주기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교대로 파송하였다. 1920년대 일제의 식민정치로 빈곤해진 한국인들의 대거 이주로⁷⁾ 한국인 선교지역은 도쿄에서 간사이(關西)와 큐슈(九州)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동경연합교회의 관리는 1926년부터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and Missions, 이하 연합공의회)로 이관되었다. 도쿄에

6) 유학생 교회는 ‘연합예수교회’ ‘제일본도쿄조선연합예수교회’ ‘도쿄간다조선기독교회’ ‘간다(神田)교회’ 등으로 불렸으나 최초의 공식 명칭은 ‘연합예수교회’였다.

7) 1920년 제일 한국인 수는 41,000명(남자 36,000명, 여자 5,000명)이었는데 1930년 419,000명(남자 298,000명, 여자 122,000명)으로 10배가 증가하였다. 오사카에 96,94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도쿄에 38,355명이 거주하였다. 이상규, “한국교회의 제일(在日) 한국인 선교와 한인교회의 기원,” 『교신선교』(2001), 65.

는 당시 연합공의회계 교회로 츠키시마교회(月島, 1929년 4월-1932년), 메구로(目黒)교회, 죠시가야(雜司ヶ谷)교회, 도미카와(富川)(1934년 후카가와, 深川으로 개명)교회, 고마고메(驅込)교회가 순서대로 설립되었다. 1934년 2월 21일 재일 연합공의회계 교회들은 오사카 동부교회당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열어 ‘재일본조선기독교’라는 교단을 조직하였다.⁸⁾ 당시 ‘재일본조선기독교’ 교단 산하에는 교회 43개 전도사 14명 선교사 6명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도쿄에서는 교단이 조직된지 몇 개월 후인 1935년 10월, 동경연합교회, 후카가와교회, 고마고메교회가 ‘재일본조선기독교’를 탈퇴하였다. 언급한 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이후 아라카와(荒川)교회, 오오지(王子)교회, 시나가와(品川)교회가 세워져, 도쿄에 소재한 ‘재일본조선기독교’ 교단 소속 한인교회는 츠키시마교회, 메구로교회, 죠시가야교회, 아라카와교회, 오오지교회, 시나가와교회 6개가 되었다.

1920년대 재일 한국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한국인 선교는 연합공의회 외에 해외 교회와 해외 교회에 연계된 재일 선교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1923년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Korean Church Federal Council)의 요청으로 재일연합선교부(Federation of Christian Missions in Japan)가 고베지역 한국인 선교비를 지원하였다. 1927년 연합공의회의 요청으로 캐나다장로교회가 한국인 사역에 필요한 선교비를 지원하고 영재형(Luther L. Young, 1875-1950, 榮在馨) 부부를 선교사로 파견하였다.⁹⁾ 영재형 부부는 일본 고베에 도착하여 한국인 선교를 시작하였다. 영재형 이후 맥리언(J. MacLean,

8) 이상훈, “‘헌법’ 제정과정을 통해 본 재일본조선기독교교회 설립의 의미,” 『한국기독교와역사』 49(2018), 141-143.

9) 윤상림, “한국교회의 재일조선인 선교 연구-1908년~1941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5), 108-111; L. L. Young,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and the Koreans in Japan," *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1936), 68; G. K. Chapman, "Japanese Missionary Co-operation in Korean Work," (April 1936), 73. 캐나다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Canada)는 1925년 설립된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임.

1928), 맥도날드(E. MacDonald, 1929), 머피(G. Murphy, 1930), 앤더슨(M. E. Anderson, 1930), 맥케이(M. MacKay, 1934) 등이 부임하여 연합공의회와 연합으로 고베와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선교하였다.¹⁰⁾

1930년대 후반 일본이 중국 그리고 미국과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1939년 4월 ‘종교단체법’을 공포하여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또 ‘일본기독교단’을 조직하여 조선기독교회들에게 가입을 강요했다. 도쿄에서는 중앙교회(분열 후 동경연합교회의 명칭), 니시간다(西神田)교회, 시나가와교회가 교회 자격으로 ‘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하고, 메구로교회, 조시가와교회, 왕자교회가 전도소로 동 교단에 가입했다.¹¹⁾ 한편 1938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장로교의 탈퇴로 해산되고 이로 인해 연합공의회가 담당하던 재일 한국인 선교 자체도 중단되었다. 이때부터 감리교가 독자적으로 도쿄에 기독교조선감리회 도쿄교회를, 다음 해 제2교회를 설립하였다. 1945년 전까지 도쿄에는 연합공의회계 교회 외에도 성결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등 다양한 교파적 배경을 가진 한인교회들이 존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일 조선기독교 19개 교회의 대표 47명이 모여 재일 한인교회들의 연합을 모색하여 1945년 11월 15일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이하 기독교연합회)를 조직했다.¹²⁾ 동 연합회의 임원회는 재일 한인교회들의 재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12월 ‘일본기독교단’에 공식적인 탈퇴를 선언했다. 기독교연합회 조직 이후 도쿄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회별 재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7개 교회들이 연합하여 1946년 2월 ‘동경교회’를 조직하였다.¹³⁾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됨에 따라 10월 기독교연합회는 기존 명칭을 ‘재일본대한기독교연합회’로 바꾸었다.

10) 윤상림, “한국교회의 재일조선인 선교 연구-1908년~1941년을 중심으로-,” 111-116.

11) 오윤태, 『東京教會 七二年史』 (동경: 재일대한기독교동경교회, 1980), 189.

12) 앞의 책, 190-196.

13) 앞의 책, 217, 268.

III. 요츠야선교회와 미카와시마교회의 개척(1924-1926년)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독립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이 운영하는 재일 선교회, 요츠야선교회는 1923년부터 선교대상을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확대하였다.¹⁴⁾ 미국 그리스도의교회는 19세기 초 교회의 교파분열에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 교회이다. 동 교회는 성경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침례와 성찬을 중시하고, 개교회의 자치권을 주장하였다. 동 교회는 19세기 중반부터 해외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하고 1883년 일본에 첫 선교사를 파견했다.

요츠야선교회가 선교대상을 한국인으로 확대하던 시기, 일본은 관동대 지진(1923년)의 여파로 혼란하였고, 192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세계 경제 공황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였다. 동 선교회의 한국인 선교는 1924년 도쿄에서 시작되었다.¹⁵⁾ 요츠야선교회는 제5교회의 한국인 교인 박경순(朴敬淳)이 한국인 복음전도사역을 원하자, 1924년 12월 1일 그를 도쿄 서북쪽 외각지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파견했다.¹⁶⁾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회의 복음전도전략은 먼저 주일학교를 세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어린이들을 통해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전도열이 강한 청년 전도자 박경순은 외각지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판자촌 한국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어린이들을 주일학교로 불러 모았다. 또 800여

14) 커닝햄은 1902년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독립선교사 앨리스 밀러(Alice Miller)와 다른 선교사들에 의해 도쿄에 설립된 요츠야선교회를 인수하였다.

15) Cunningham,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87쪽에서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인 선교는 1923년 도쿄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오류임. *TC*, January 1925, XXIV no.3, 1.

16) "The Pak Brothers," *TC*, January 1927, XXVI no.3, 1; "Miscellaneous," *TC*, November 1935, XXXV no.1, 4.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경학교 2개와 영어 야간학교를 열었다. 박경순의 헌신적인 전도활동으로 12월 크리스마스 축하 집회에 한국인 63여명이 출석하였다.¹⁷⁾ 다음 해 첫 주일에는 최초의 세례자가 탄생했으며 4명의 교인들이 제5교회의 하야시 큐히치(林 キュヒチ)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¹⁸⁾ 이렇게 하여 도쿄 서북쪽 외각지대 미츠크보(Mitsukubo)에 요츠야선교회의 제21선교기지가 개설되었다.

미츠크보 선교기지는 1925년 8월 도쿄 동쪽에 위치한 혼조(本所)로 선교기지를 옮기게 되었다.¹⁹⁾ 혼조는 관동대지진 때 완전히 불타버린 초라하고 먼지투성이 달동네 지역으로 대지진 후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 판자 집을 지어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요츠야선교회가 방을 임대하여 매주일 50-60명의 어린이와 20-30명의 성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야간에는 평균 25-35명의 교인들이 출석했다.²⁰⁾ 이 곳에서는 신앙교육뿐 아니라 민족정신의 맥을 잇는 한글교육도 이루어졌다. 어린이를 위해 한국어 입문과 정부터 듣고 쓰기까지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학교에서는 18-19명의 학생들이 주 2회 3개월 코-스로 한국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배웠다.²¹⁾

1925년 박경순은 도쿄 북쪽 외각지대에 위치한 미카와시마 지역에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동년 가을 혼조에서 비교적 가까운 미카와시마를 탐사하였다. 이 지역은 혼조와 마찬가지로 관동대지진으로 완전히 불타버린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초라한 판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집단 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혼조와는 달리 미카와시마의 한국인

17) TC, February 1925, XXIV no.4, 2.

18) TC, August 1925, XXIV no.10, 2.

19) TC, November 1925, XXIV no.1, 3.

20) TC, February 1926, XXV no. 4, 4; November 1925, XXIV no. 1, 3.

21) TC, November 1925, XXIV no.1, 3.

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다. 박경순은 1925년 12월경 이곳에 요츠야선교회 제22선교기지를 세웠다.²²⁾ 미카와시마 선교기지의 예배당은 천막으로 시작되었다. 지붕을 천막으로 덮었지만 주위 사방의 벽은 나무로 만들었고, 땅이 고르지 못해 나무로 마루를 깔고 그 위에서 집회를 가졌다. 전도자 박경순은 먼저 주일학교를 세워 어린이 전도에 집중하고 이를 성인 전도로 확산시켰다. 미카와시마 지역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또 야간학교를 개설해 문맹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켰다. 이 모든 것이 천막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졌다.²³⁾

1925년 겨울부터 1926년 8월 전까지 혼조와 미카와시마 양 선교기지가 부흥하여 감당해야할 사역이 많아지자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였다. 1926년 7월 소채권 양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일학교와 한국어 교육을 도왔고,²⁴⁾ 박경순의 형인 박홍순 목사 부부가 도일하여 동생의 사역에 동참하였다. 박홍순은 20여 년 전 한 선교사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후 신학교에 진학하여 전도사가 되고 장로교 소속 목사가 되었다. 그는 15년 목회 경험을 가진 베테랑 목사였다. 요츠야선교회는 박경순의 미국 유학으로 사역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하여 박홍순을 연간 630 달러(집세와 생활비를 포함)의 급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했다.²⁵⁾

요츠야선교회는 1926년 8월 혼조(本所)와 미카와시마 선교기지를 통합하여 사역자 5명과 교인 45명과 함께 ‘미카와시마조선기독교교회’(요츠야선교회의 제7교회)를 조직했다.²⁶⁾ 동 교회는 외국 교회와 이와 연계된 재일

22) *TC*, January 1926, XXV no 3, 3.

23) *TC*, July 1926, XXV no 9, 1.

24) *TC*, September 1926, XXVI no. 11, 2.

25) *TC*, November 1926, XXVI no. 1, 1.

26) *TC*, April 1927, XXVI no. 6, 2; *TC*, January 1927, XXVI no. 3, 1.

선교회에 의해서 개척된 첫 번째 한인교회로 1909년 도쿄에 설립된 동경 연합교회 이후 설립된 두 번째 한인교회였다.²⁷⁾ 동 교회는 설립과 동시에 성경학교 2개를 세우고 야간학교 2개를 개설했다. 또 성경의 전례를 따라 평신도 전도자 박경순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세례반을 만들어 세례권한을 주었다.²⁸⁾ 박경순은 1926년 11월 그의 처, 어머니, 딸을 포함하여 한국인 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²⁹⁾ 박경순과 박홍순은 매주 몇 회씩 설교하고, 성경학교 4개, 기도회 2개, 야간학교 2개를 개설하고 또 1-3회 노상모임을 감독하고 가가호호 방문했다.³⁰⁾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인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미카와시마 교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토지, 예배당, 목사관, 유아원 등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 1만 5천 달러의 모금을 후원자들에게 호소하였다.³¹⁾ 동 선교회는 1926년 말 예배당, 목사관, 유아원을 지을 토지로 일본인 집 3채 68평을 244엔 80전에 구입했다.³²⁾ 박경순은 예배당이 건축되는 것을 보기 위해 미국 유학의 출발을 연기했고, 형인 박홍순 목사를 도와 모두가 단결하여 성전 건축에 참가하도록 격려했다.³³⁾

1927년 6월 26일(주일) 미카와시마교회의 새 성전이 완성되어 봉헌식이 거행되었다.³⁴⁾ 이 봉헌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하객들이 찾아왔다. 성전

27) 요츠야선교회는 이후 1929년 동경 후카가와(深川)에 두 번째 교회(제10교회)를, 1935년 세 번째 교회(제25교회)를 세웠다.

28) 요츠야선교회는 성경의 전례를 중요시하여 훈련받은 평신도에게 설교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 및 성찬을 거행할 권한을 주었다.

29) *TC*, January 1927, XXVI no. 3, 1.

30) *TC*, January 1927, XXVI no. 3, 2.

31) *TC*, November 1926, XXVI no. 3, 1.

32) 俞恩植, 「東京福音教會 70年史(1924-1959)」, 55.

33) *TC*, January 1927, XXVI no. 3, 1; *TC*, May 1927, XXVI no. 6, 1.

34) *TC*, August 1927, XXVI no. 8, 1.

안은 물론이요 부속 유아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교회는 수용인원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의자를 치우고 바닥을 밀집으로 깔았고,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다. 부인회 회원들과 여성 청년회원들은 모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앞 쪽에 앉았다. 일본인 목사도 몇 분 참석했는데 요츠야선교회 소속 제4교회의 후지타(藤田) 목사가 축사를 했다. 축하 분위기를 살리는 음악 프로도 있었다. 현당식을 방문한 도쿄 일간지의 한 취재 기자는 “이 교회는 일본 본토의 유일한 한국인 교회의 건물이다”라고 기사화 했다.³⁵⁾ 새 교회가 건축된 곳은 東京都 荒川區 三河島町 5丁目 1006番地(현재는 荒川區 荒川 4丁目 3番地) 였다.

IV. 미카와시마교회의 성장(1927-1936년)

미카와시마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적으로 사역한 박경순은 교회가 조직되어 성장해감에 따라 목회경험이 풍부한 박흥순에게 교회를 맡기고 192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³⁶⁾ 미카와시마교회는 제2대 담임목사 박흥순의 지도 아래 새롭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박흥순의 사역기간(1927-1929.3)에 제직회, 청년회, 성가대가 조직되고, 시설이 확충되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박흥순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와 선교기지에서 봉사했다.

1927년 10월 2일 조직된 청년회는 대부분 유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남

35) 1927년 현재 일본 본토에는 21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도쿄(東京)과 요코하마(横浜)에 5개(교인 600명),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고베(神戸)에 12개(교인 500명), 후쿠오카(福岡), 야와타(八幡)에 4개(교인 50명)가 있었다. 이상규, “한국교회의 재일(在日) 한국인 선교와 한인교회의 기원,” 『고신선교』, (2001), 66.

36) *TC*, June 1927, XXXVI no. 7, 1.

성회원과 여성회원 비율이 4대 1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³⁷⁾ 이들 회원들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회원의 변동률은 아주 높았다. 1927년 동 교회 부속시설로 유아원이 설립되었다. 당시 유아원의 주임교사는 임남순이었다. 임남순은 기독교학교에서 훈련받은 재원으로 열정을 가진 교사였으며, 김모 자매가 보조교사로 임교사를 도왔다. 조선유아원은 최신 시설을 갖추었으나 유아들의 가정형편이 대부분 좋지 않아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였다.³⁸⁾

박홍순이 사역하는 기간 미카와시마교회는 성장하였다. 1927년 8월 현재 선교기지 4개를 세웠으며, 이곳 선교기지에서 훈련받은 교인들이 본 교회의 양육자로 봉사하였다.³⁹⁾ 동 교회는 1927년 9월 평균 43명이 참석한 기도회를 가졌고 또 교회 최초로 10월-11월경 1주일간 새벽기도회를 가졌는데 평균 14명이 참석했다.⁴⁰⁾ 1928년 7월 첫 주 한 주간 교회헌납축하 전도집회(현재의 특별전도집회)와 기념식을 가졌다.⁴¹⁾ 미카와시마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1929년 주일예배 출석 교인이 평균 100명을 넘어섰다.

미카와시마교회는 도쿄에 있는 타교단 한인교회들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1928년 5월 28일 ~ 6월 3일 미카와시마교회가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도강연회를 개최했을 때 동경연합교회의 신공숙(申公淑)목사(1927-1929)를 강사로 초대했다.⁴²⁾ 같은 해 12월 도쿄조선YMCA, 도쿄조선YWCA, 연합공의회계(동경연합교회, 후카가와교회, 고마고매교회)가 주

37) 兪恩植, 「東京福音教會 70年史(1924-1959)」, 61-64. 청년회에 대한 기술은 창립기념사진과 창립1주년기념사진을 대조하여 추론한 것이다.

38) *TC*, May 1929, XXIII no. 7, 1.

39) “Dedication of Korean Chapel,” *TC*, August 1927, XXVI no. 8, 1.

40) “Miscellaneous,” *TC*, November 1927, XXII no. 1, 2.

41) *TC*, August 1928, XXII no. 10, 2.

42) “東京教會講演會,” 「基督申報」 1928년 6월 13일.

최한 성탄축하예배에서 미카와시마교회 조선유아원 어린이들이 유희창가 가극 등의 공연을 하였다.⁴³⁾

미카와시마교회가 체계화되고 안정되어 가자 박홍순은 동 교회를 사임하고 본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29년 3월 한국으로 떠났다.⁴⁴⁾ 박홍순이 동 교회를 떠난 후 박홍순의 후임으로 유지풍(柳志豊) 목사가 부임하였다. 유지풍 목사가 사역하는 기간(1929.4-1931.6) 새벽기도회가 정례화 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⁴⁵⁾ 새벽기도회는 한국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과정에서 정형화된 독특한 기도 형태로 한국인 목사 박홍순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유지풍 목사 사역 기간에 정규 기도회로 정착되었다. 영적 부흥으로 조선YMCA의 한 청년은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가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되었다.⁴⁶⁾ 신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은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다.

유지풍은 도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전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도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는 도쿄에 있는 큰 강당을 빌려 음악전도집회를 열었는데 이 전도집회에 약 9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그는 또한 교인 성경공부를 끝내고 곧 이어 불신자들을 방문해 복음을 전했으며, 신앙적으로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다.⁴⁷⁾ 유지풍 목사가 치리한 시기 미카와시마교회 관리 하에 있는 선교기지가 7개로 늘어났고, 이 선교기지에서 사역하는 전임사역자가 7명으로 증가했다.⁴⁸⁾ 이들 선교기지 가운데 후쿠가와(深川) 지역 제2선교기지는 크게

43) “東京聯合教會 聖誕祝賀式空前的 盛況,” 「基督申報」 1936년 11월 15일.

44) “Yotsuya Works,” *TC*, September 1929, XXVIII no. 1, 2; “About People,” *TC*, July 1929, XXVIII no.9, 4.

45) “What They Say,” *TC*, July 1929, XIII no. 9, 1. 새벽기도회는 현재에도 주 5일(월~금요일) 오전 6~7시 사이에 드려지고 있다.

46) “About People,” *TC*, July 1929, XIII no. 9, 1.

47) “About People,” *TC*, February 1930, XXIX no. 4, 1.

성장하여 1929년 요츠야선교회의 두 번째 한인교회(제10교회)로 조직되었다.⁴⁹⁾

유지풍이 사역하는 동안 미카와시마교회는 타교단 교회들과 강단을 교류하기도 했다. 유지풍은 1929년 11월 11일 동경연합교회의 주일설교를 맡았다.⁵⁰⁾ 다음 해 1930년 5월에는 미카와시마교회가 1주간의 특별대전도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동경연합교회의 김길창(金吉昌 1929-1931), 조선성결교회의 박현명(朴炫明) 등을 강사로 초청하였다.⁵¹⁾

1931년 7월 유지풍 목사의 후임으로 김상준(金相濬) 목사가 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⁵²⁾ 김상준은 1907년 정빈과 함께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워 전도를 시작하고 무교동 복음전도관(현 중앙성결교회)의 주임교수로 시무했다. 1914년 목사 안수를 받아 한국 성결교회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그 후 경성 성경학원의 교수와 사감으로 섬기고, 교회의 목회 사역을 겸하였다. 그러나 1917년 동양선교회를 사임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교파 교회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었다.⁵³⁾

김상준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1931년 7월 20-30일까지 열흘 동안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 연합공의회계 한인교회와 조선성결교회와 연합하여 2주간 부흥집회를 열고, 부흥회 기간 중 사경회를 인도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⁵⁴⁾ 또 성경을 통한 한국인 사역자 훈련에 중점을 두어 1931년 9월 교

48) "Yotsuya Mission Workers," *TC*, July 1929, XIII no. 9, 1.

49) "About People," *TC*, February 1930, XXIX no. 4, 2.

50) 이상훈, "在 도쿄 조선교회들의 형성과 접점-192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기독교사국제컨퍼런스 발표논문, 2018년 12월 1일), 8.

51) "外地에잇는朝鮮教會," 『基督申報』 1930년 6월 4일.

52) "Mr. San Chung Kim," *TC*, September 1931, XXX no.11, 4. 오수강, 『基督의 教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교회, 2007), 122, 129. 김상준은 당시 요코하마 교회의 임시 담임목사로 사역하던 성낙소 목사가 요츠야선교회에 소개하여 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

53) 이명직,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약사』 (동양성결교회, 1929), 31, 51.

회 내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성경학교’(Korean Bible Institute)를 개설하였다.⁵⁵⁾ 남녀 26명이 매주 목, 금, 토요일 성경공부와 크리스천 사역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모였다. 김상준은 그가 시무하는 기간(1931.7-1933.3) 말씀 위에 바로 서야한다는 믿음으로 교인들을 목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지병인 당뇨병으로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1933년 3월 본 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하였다.⁵⁶⁾

V. 미카와시마교회의 고난과 재건(1937-1960년대)

미카와시마교회는 1930년 후반부터 일본 내 교회와 국가에 일어난 변화로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⁵⁷⁾ 일본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국가총동원을 발동하여 국민생활의 자유를 제한했다. 1939년 4월 ‘종교단체법’을 공포하여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교단 교회들을 한개 교단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41년 2월 24일 고시한 미국 정부의 자국민 철수명령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을 떠났다.⁵⁸⁾ 요츠야선교회의 선교사 6명 중 4명이 일본을 떠났다.

1937년 한국에서 사역하던 이원균 목사가 미카와시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이원균은 1925년 서울에 선교기지를 세운 전도인으로 한동안

54) "Tokyo Notes," *TC*, October 1931, XXX. no. 12, 1. "在日本關東基督教會聯合暑期心靈修養會通信," 『基督申報』1931년 9월 16일.

55) *TC*, March 1932, XXXI no. 5, 2; April, XXXI no. 6, 1.

56) 오수강, 『基督의 教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126-29. 김상준 목사는 귀국한지 몇 개월 후 1933년 10월 12일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57) "Yotsuya Mission," *TC*, May 1941, 40 no. 7, 1.

58)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1945), 385-86. "A Statement of Facts," *TC*, January 1941, 40 no. 4, 3; "The Work Goes On," *TC*, January 1941, 40 no. 4, 1.

신학을 공부하고 1933년 다시 한국사역을 맡았다. 그는 한강 이북 특히 평북 구성지역을 중심으로 교회와 선교기지를 개척하는데 헌신하였다.⁵⁹⁾ 이원균은 시무하는 기간(1937-1940.12) 교회 내부 보다는 외부 활동에 치중했다. 한인 크리스천 신문을 발행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전도집회를 인도했다. 특히 재일본 조선YMCA와 깊은 관계를 맺고 YMCA활동에 참가하여 1940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⁶⁰⁾ 이원균의 사역 기간 중 1937년 5월 미카와시마교회는 연합공의회계 후카가와구(深川區)교회, 시라가와초(白河町)교회, 타카다혼초(高田本町)교회와 함께 3회에 걸쳐 연합전도회를 개최하였다.⁶¹⁾

1941년 1월 오다 나라지(織田櫛次, 한국명 田永福) 목사가 이원균의 후임으로 미카와시마교회에 부임하였다.⁶²⁾ 오다는 일본인으로 11살에 절에 들어가 선도수행을 했으나 1925년 고베(神戸)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일본전도대의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다음해 오다는 고베의 ‘신카이치(新開地) 복음전도관’에서 세례를 받은 후 ‘일본전도대어영성 서합사(日本傳道隊御影聖書學舎, 關西神學校의 전신)에 입학하여 고베의 작은 교회에 봉사하면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이 고베교회에서 ‘김’이라고 부르는 한국 유학생을 만났는데,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변경시킨 계기가 되었다. ‘김’은 언제나 오다를 붙들고 일본제국주의의 죄악에 대해 분개했다. 그 후 오다는 한국 민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3개월의 기도 끝에 자신의 일생을 한국선교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1928년 4월 한국에 도착한 이후 10여 년 동안 전도와 교회개척에 노력하였다. 1932년 ‘조

59)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134-135.

60) TC, April 1939, 38 no. 6, 1-2; 兪錫濬, 『在日 韓國人の 설움』 (서울: 쿤란, 1988), 352, 357.

61) “東京傳道の最新機運 第二回聯合傳道會,” 「基督申報」 1937년 5월 19일.

62) 兪恩植, 「東京福音教會 70年史(1924-1959)」, 99-104.

선성결교회'에 가입하고 경성성서학원에 들어가 수학하며 서대문 밖에 있는 천연동에 교회를 개척했다. 1935년 '동양선교회'에 가입하여 목사안수를 받았다. 1937년 12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비판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39년 석방되었으나 경찰의 방해로 전도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일본에서 오다는 '일본신학교'(도쿄신학교의 전신)에서 연구하고, 1941년 졸업 후 1월 미카와시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오다 목사가 동교회를 담임하는 기간(1941-1946) 일본은 전시체제 아래 국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엄하게 통제하였다. 일본 경찰은 교회를 감시하고 교회의 운영을 당국에 보고하게 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그럼에도 동 교회의 예배는 계속 드려졌고 기도회는 쉬는 일 없이 계속되었다.

1940년대 초 일본 교단 교회들을 한개 교단교회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1940년 10월 17일 일본 건국 2천6백년을 축하하는 전국 기독교신도대회에서 각 교파의 대표들이 '교회합동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합동을 결의했다. 또 새로운 교단 명을 '일본기독교단'으로 정하고 교단규칙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 교회를 교파별로 모아 11부(部)로 나누고 각 부가 한 연합체로 운영되는 부제(部制) 형식의 교단을 만들었다. 1941년 6월 24-25일 일본 각 교파 대표들은 후지미마치(富士見町)교회에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일본기독교단'을 결성하였다. 당시 일본 전국에 흩어져 있던 80여개의 한인교회들은 '일본기독교단'에 가입을 강요당했고 이때 재일조선기독교회는 '제1부(部) 일본기독교회'에 가입하였다.⁶³⁾

미카와시마교회는 1941년 6월 교회주관자 이원균의 이름으로 '일본기독교단 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1942년 2월 오다 목사를 미카

63) 오운태, 『東京教會 七二年史』, 173, 180.

와시마교회 주관자로 임명하는 사령장과 함께 동 교회를 '제10부(部) 일본 독립기독교교회동맹회' 소속 교회로 인가해 주었다. 미카와시마교회는 도쿄 제2분구(分區)에 소속되었는데 오다 목사는 일본인 교회를 포함하여 아라카와구(荒川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임명되었다.⁶⁴⁾

이런 상황에서도 미카와시마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 당시 교세는 등록교인 90명(남자 40명, 여자 50명)이었고, 주일예배 출석 인원은 120명이었다. 출석 인원이 등록교인보다 많은 것은 동 교회의 구성원이 일본에 정착하여 정주하는 교인과 유학 또는 일 때문에 일시 거주하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는 1943년 미카와시마교회의 교세와 재정을 보여준다.⁶⁵⁾

[미카와시마교회의 교세와 재정 상태]

교인	남자	40명
	여자	50명
	총계	90명
세례자		20명
집회	예배 출석	120명
	기도회 출석	60명
주일학교	교사 수	10명
	재적학생 수	90명
	출석학생 수	75명
부인회		33명
회계	수입	1,635엔
	지출	1,582엔,
	재산총액	39,000엔

64) 織田檜次, 『チグククン 朝鮮·韓國人 傳道 の 記録』 (동경: 日本基督教團, 1977), 124; 오운태, 『東京教會 七二年史』, 173.

65) 『日本基督教團年鑑』 (昭和 18년), 61.

오다 목사는 당시의 미카와시마교회의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여러 한인교회 가운데] 제일 빈틈없는 곳이 미카와시마교회로 교회당도 가지고 있었다. 매주일 120-3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모였다. 그리고 미카와시마 교회가 도쿄에서 제일 가정적이었다. 신주쿠(新宿)교회는 200명 정도 모였지만 학생과 여행자뿐이고 유동이 잦았다. 그래서 교회 조직에 장로 두 사람 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카와시마 교회는 전부가 가족이다.⁶⁶⁾

1943년에 들어서 일본의 전세가 기울어지자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목사들에게도 권노 동원을 요청했다. ‘일본기독교단’은 이에 응하여 만 45세 이하의 목사 20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목사들은 모두 1944년부터 징용에 동원되기 시작했는데 오다 목사도 징용대상이었다. 오다 목사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코하마의 소화전공에서 한국어 통역으로 일하는 징용에 동원되었다. 또 1944년 7월 구레(吳) 해병대(海兵隊)에 입대하라는 소집명장을 받고 군에 입대했다. 그는 그림과 글씨를 잘 쓰는 재능이 있어 히로시마 구레(廣島吳)의 해병대에 배치되어 서기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

오다 목사가 입대한 후 당시 조시가야(雜司ヶ谷) 교회(현‘동경교회’의 전신)을 담임하고 있던 오운태 목사가 임시로 미카와시마교회의 강단을 지켰다. 오운태는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일치신학교와 일본대학 고등 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1941년 전도사가 되었고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⁶⁷⁾ 오목사는 이전 동 교회를 담임하였던 이원균 의 친구로 일찍부터 미카와시마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고로 오다

66) 織田樞次, 『チグクン 朝鮮·韓國人 傳道 の 記録』, 131-132.

67) 해방 후 오운태 목사는 재일한인연합교회인 ‘동경교회’의 담임목사로 1980년 5월까지 시무했다.

목사는 군에 입대하면서 오윤태에게 교회를 잠시 부탁하게 되었다. 오윤태는 조시기가야교회의 예배가 끝나면 바로 미카와시마교회로 달려와 정오 12시부터 예배를 인도했다.⁶⁸⁾

1945년에 들어서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이 시작되었다.⁶⁹⁾ 1945년 1월부터 5월까지 계속된 미 공군의 ‘동경대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다.⁷⁰⁾ 미카와시마교회가 위치한 아라카와구는 군수품 생산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1945년 1월 27일부터 8월 15일 패전을 맞이할 때 까지 공습으로 인하여 아라카와구는 사망자 7백 수십 명, 총면적의 45%, 건물 전체의 70%가 유실되었다. 전재(戰災)와 소개(疏開)로 인해 80%의 구민이 아라카와구를 떠나갔다. 미카와시마교회는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어 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주일 후 오다 목사는 해병대에서 제대하였다. 그는 죽원(竹原)에 가서 가족을 만난 후 바로 도쿄로 올라와 미카와시마교회 교인 이재실(李裁實)의 집에서 교회를 재건하고자 했다. 당시 제일조선기독교회는 전란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교회의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연합을 모색하였다. 1945년 11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하고,⁷¹⁾ 이 총회에서 구성된 임원회는 전국 교회의 재산 정리, 무목교회의 목사 청빙, 한국선교기관과 캐나다선교부에 연락, 일본기독교단 탈퇴 등을 결정했다. 미카와시마교회는 1945년 11월 15일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 창립총회에 대표를 파견했다.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는 12월 30일 ‘일본기독교단’에 통고문을 보내어 공식적 탈퇴를 선언

68) 오윤태, 『東京教會 七二年史』, 187, 267.

69) 兪恩植, 『東京福音教會 70年史(1924-1959)』, 119-124.

70) 인적 피해가 약 23만 명. 물적 피해는 123억 4,176엔에 달했다.

71) 오윤태, 『東京教會 七二年史』, 190-196. 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 창립총회에는 19개 교회로부터 47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했다.

전후 도쿄 한인교회들의 상황 또한 어려웠다. 목사와 교인들은 흩어졌으며, 거의 모든 교회에는 사역자가 없었다. 도쿄 한인교회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하나로 연합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1945년 12월 도쿄 한인 교회들이 YMCA 강당에 모여 성탄예배를 드리고, 이를 계기로 교회연합을 모색하여, 1946년 2월 10일 동경한인연합교회라고 할 수 있는 ‘동경교회’를 조직하고 첫 예배를 드렸다. 미카와시마교회에서는 첫 예배에 4명이 참석했다. 오다 목사는 미카와시마교회를 ‘동경교회’에 합병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후쿠오카(福岡)로 떠났다.⁷²⁾ ‘동경교회’ 안에 편입된 미카와시마교회는 잠시 요츠야선교회 소속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미카와시마교회가 ‘동경교회’에 편입된지 1년 반이 지난 1947년, 몇몇 사람들이 전 교인 임응자 집사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⁷³⁾ 이후 미카와시마교회에서는 이종현, 요츠야선교회의 선교사 해롤드 심스(Harold Sims), 한국선교회의 선교사 존 힐(John J. Hill)이 시무하였다.⁷⁴⁾ 특히 심스의 사역 기간에 원래 있었던 대지 부근에 요츠야선교회의 지원과 교인들의 노력으로 1949년 3월 13일 새로운 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봉헌하였다. 존 힐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1952년 7월부터 한국교회사자로 잘 알려진 장로교 김양선(金良善) 목사가 7-8개월 동안 예배를 인도하였다. 이후 사역자의 부재로 박용한(朴容漢)장로가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72) 오다 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 후쿠오카(福岡)교회에서 시무하고, 1948년 8월 같은 교단 소속 경도교회로 전입하여 22년간 목회를 하다가 1970년 정년으로 사임하였다. 在日大韓基督敎會, 『在日大韓基督敎會, 宣敎90周年記念誌(1908-1998)』 (동경: 在日大韓基督敎會, 2002), 205.

73) “Korean Church Reopens,” *TC*, September-October 1947, 46 no. 5, 3.

74) 兪恩植, 『東京福音敎會 70年史(1924-1959)』, 127-149. 이종현은 관동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미카와시마교회에서 1947.9~1948.8 임시 목사로 수교하다가 후쿠오카로 떠남.

1956년 7월부터 재일대한기독교연합회 소속 남정걸(南正杰)전도사, 1958년에는 성결교 목사 황재열(黃在烈)에 의해 임시 치리되었다. 미카와시마교회가 1947년 7월 이종헌을 시작으로 2명의 선교사 (해롤드 심스, 존 힐), 3명의 목사 (김양선, 남정걸, 황재열), 1 명의 장로(박용한)에 의해 치리된 것은 교회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카와시마교회는 1959년 말 조기선(趙淇善) 목사가 부임하여 장기간 사역하면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 조기선은 고베 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 대학원에서 수학한 유능한 영적 지도자로 15년 동안 미카와시마교회를 목회하였다.⁷⁵⁾ 조기선은 도쿄 기독교계에 유력 인사로 1965년대 한-일 국교문제로 일본 사회가 떠들썩할 때 일본-한국 평화조약(한일협정)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TV 대담프로에 초대받아 “일본이 회개하고 한국이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⁷⁶⁾ 미카와시마교회는 1953년부터 요즈야선교회가 강력하게 추진한 삼자정책 특히 자치와 자급정책의 실시에 따라 1960년대 초 요즈야선교회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고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종교법인인 ‘대한예수교동경복음교회’로 등록하여 독립된 지역교회가 되었다.⁷⁷⁾

조기선이 사역하는 동안 동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교인 수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기존 건물로는 수용이 불가하여 교인들의 헌금 2,100만 엔(60,000달러)으로 1970년 12월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헌당하였다.⁷⁸⁾ 1971년 추수감사주일에 출석자는 130명이었고 감사헌

75) “50th Anniversaries-Mikawashima Church of Christ,” *TC*, February 1975, 74 no. 1. 2-3. 조기선은 1975년 미국 워싱턴 지역 시애틀(Seattle)에 위치한 한인침례교(Korean Baptist Church)에서 사역하기 위해 미카와시마교회를 떠났다. 이 교회에서 20년 사역으로 은퇴한 후 다시 미카와시마교회로 돌아와 사역하였다. “News Notes,” *TC*, April 1997, 95 no. 2, 3-4.

76) “News Notes,” *TC*, January 1966, 64 no. 4, 2.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 조인한 조약.

77) 履歷事項全部證明書.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정확한 시기는 1960년 7월 11일.

금은 3,600,000 엔(10,000 달러)에 달했다. 1974년 등록교인 수가 172명이
고, 평균 150여명이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며,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헌금
은 2,650,000 엔(80,000 달러)에 달했다.⁷⁹⁾ 동 교회는 1974년 11월 3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때 교회의 명칭을 '동경한국복음그리스도의교회'(Tokyo
Korean Gospel Church of Christ)로 개명하였다. 이후 교회의 멤버십과 성
찬을 모든 교단 교인들에게 열어 제일 초교파 한인교회가 되었다.⁸⁰⁾

VI. 결 론

본 연구는 외국 교회의 지원에 의해 개척된 도쿄 한인교회 미카와시마
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되 특히 동 교회의 설립과 발전, 교회적 특성, 그리
고 도쿄 타교단 한인교회들과의 협력과 교류에 주목하였다. 미카와시마교
회는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와 연계된 요츠야선교회 소속 제5교회의 한국인
교인에 의해 1926년 개척된 후 한국인 전문사역자들에 의해 운영되어 영
향력 있는 한인교회로 성장하였다. 동 교회는 1940년대 초 일본이 전시체
제에서 조직한 '일본기독교단'에 편입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에 참여하여 '일본기독교단'을 탈퇴하고, '동경교
회' (재동경한인연합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1년 반 후 요츠야선교
회의 지원 아래 원래의 미카와시마교회로 재건되었으며, 1960년대 초 종교
법인으로 독립하여 자치, 자립하는 지역교회(1974년 '동경한국복음그리스

78) "Mikawashima Church Dedicates New Building," *TC*, January 1971, 70 no. 1, 1.

79) "Mikawashima," *TC*, January 1972, 71 no. 1, 1-2; "50th Anniversaries-Mikawashima Church of Christ," *TC*, February 1975, 74 no. 1, 1-2.

80) "50th Anniversaries-Mikawashima Church of Christ," *TC*, February 1975, 74 no. 1, 1-2; "Mikawashima Celebrates 60 Years," *TC*, January 1985, 84 no. 1, 3.

도의교회'로 개명)가 되었다.

미카와시마교회는 개척된 후 3년 만에 100명 이상이 출석하기 시작하고 1960년대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한인교회가 되었다. 동 교회는 1926년 요츠야선교회 제7교회로 개척되어 1980년대 재일 초교파 한인교회가 되기 전까지 한국교회와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의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동 교회는 몇 년간을 제외하고는 한국인 사역자(목사 혹은 전도사 혹은 장로) 혹은 친한국적 일본인 사역자(오다 나라지)에 의해 치리되어 교회 내부 조직이 발전되고, 도쿄 내 타교단 교회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한국교회 특유의 '전도(부흥)집회' '새벽기도회'를 정착시켰다. 반면 동 교회는 그리스도의교회로부터 개교회의 자치권을 계승하여 교단체제에 반대하고, 존속 기간 대부분 재일 한인교단교회들의 전국 조직인 (장로교와 감리교의 성격을 띤) 재일본조선기독교에 가입하지 않았다. 1945년 이후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에 참여하고 '동경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나, 1947년 연합회와 '동경교회'로부터 탈퇴하여 교단교회와의 관계를 끊었다. 반면 요츠야선교회와 재정과 인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성경공부를 중시하고 성경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다. 동 교회는 재일 한인교회연합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도쿄 타교단 한인교회와 복음사역에 협력하고 교류하였다. 1960년 11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지역교회가 되었고 이후 멤버십과 성찬을 모든 교단 교인들에게 여는 초교파교회로 전환하였다.

현재 한국기독교역사의 통사에는 해외 교회의 지원 아래 개척된 최초의 재일 한인교회 미카와시마교회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다. 미카와시마교회는 일제 식민지 치하와 해방 후 일본 대도시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처럼 제2등급 국민으로 차별대우와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 받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신적 위안처가 되었다. 외국 교회의 지원 아래 개척

된 최초의 한인교회인 미카와시마교회는 1920년대 후반부터 외국 교회의 후원과 지원을 받은 타교단 한인교회들과 함께 한국교회기독교역사 안에 자리를 가져야 한다.

— 주제어 —

요츠야선교회, 미카와시마(三河島)교회, 도쿄 한인교회, 오다 나라지(織田樞次), 조기선(趙淇善)

Yotsuya Mission, Mikawashima Church of Christ, Tokyo Korean Church, Oda Naraji, Cho Ki Zen

참고문헌

-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1864-1936』. 논산: 한성신학교, 1991.
-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도쿄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2012), 123-147.
- 서정민. 『한일 기독교 관계사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오수강. 『基督의 教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교회, 2007.
- 오윤태. 『東京教會 七二年史』. 동경: 제일대한기독교동경교회, 1980.
- 俞錫濬. 『在日 韓國人の 設움』. 서울: 쿤란, 1988.
- 俞恩植. 『東京福音教會 70年史(1924-1959)』. 미간행 제본문서.
- 윤상립. “한국교회의 제일조선인 선교 연구-1908년~1941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명직.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약사』. 동양성결교회, 1929.
- 이상규. “한국교회의 제일(在日) 한국인 선교와 한인교회의 기원.” 『고신선교』 (2001), 59-71.
- 이상훈. “‘헌법’ 제정과정을 통해 본 재일본조선기독교회 설립의 의미.” 『한국 기독교와 역사』 49(2018), 137-172.
- _____. “在 도쿄 조선교회들의 형성과 접점-192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기독교사국제컨퍼런스 발표논문, 2018년 12월 1일.
- _____. “조선장로회와 감리교에 의한 재도쿄 조선인에 대한 공동선교-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96(2019), 197-222.
- 在日大韓基督敎會. 『在日大韓基督敎會, 宣敎 90周年記念誌 (1908-1998)』, 동경: 在日大韓基督敎會, 2002.
- 한국기독교역사회 편. 『한국기독교의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2017.

履歷事項全部證明書. 昭和 35년.

「日本基督教團年鑑」. 昭和 18년.

織田樞次. 『チグクン 朝鮮・韓國人 傳道 の 記録』, 동경: 日本基督教團,
1977.

Cunningham W. D. and Owen Still.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Tokyo: Yotsuya Mission, 1939.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ume
11: Advance through Storm*.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5.

Tokyo Christian. 1925-1997.

Abstract

**Yotsuya Mission and Church for Koreans in Tokyo:
Formation of Mikawashima Korean Church of Christ
(1901-1960s)**

Paek, Chong-ku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the Mikawashima(三河島) Korean Church of Christ (below Mikawashima church), which is the first church supported and planted by the Yotsuya(四谷) Mission in Tokyo, Japan. It focused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the ecclesiast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cooperation and fellowship with other denominational Korean churches in Tokyo for evangelical cause of the Mikawashima church.

The Mikawashima church was created by a Korean lay Christian from the church of Yotsuya Mission (the Fifth Church) associated with the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low Church of Christ). It was managed and developed by Korean pastors affiliated with certain Korean denominational churches. In the early 1940s, it was united into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UCCJ, 日本基督教団). After World War II, it withdrew from the UCCJ and was reconstructed into the church before the War under the support of the Yotsuya Mission.

By the early 1960s this church became independent from Yotsuya Mission and was registered by the government as a Religious Cooperation and secured the status of a local church.

The Mikawashima church was one of the growing Korean churches in Tokyo; within three years after its foundation this church had developed into the church with more than 100 Christian members. This church owned the dual ecclesias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hurch and the Church of Christ in the USA during the period concerned. This church, which had been governed mostly by Korean pastors/evangelists or pro-Korean Japanese pastor (like Oda Naraji, 織田櫛次), inherited the tradition of 'Evangelistic Meeting' or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from Korean churches. On the other hand, while it maintained the financial and human relationship with by the Yotsuya Mission yet, it inherited the autonomy of one local church from the Church of Christ in the USA and opposed the denominational system. It did not participate in the united organization of Korean denominational churches in Japan called as 在日本朝鮮基督教 or 在日本朝鮮基督教聯合會. Finally it regarded the Bible as the standard of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spite of its opposition to the denominational system it did not exclude its cooperation and fellowship with other denominational churches in Tokyo.

국문초록

광주의 현대화와 기독교: 소심당(素心堂) 조아라(曹亞羅)를 중심으로

박창훈
(서울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외국 교회의 지원에 의해 개척된 최초의 재일 한인교회 미카와시마(三河島)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되 특히 동 교회의 설립과 발전, 교회적 특성, 타교단 한인교회들과의 협력과 교류에 주목하였다. 미카와시마 교회는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와 연계된 재일 요츠야선교회 소속 제5교회의 한국인 교인에 의해 1926년 개척되어 한국인 전문사역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성장하였다. 동 교회는 1940년대 초반 ‘일본기독교단’ 산하에 편입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탈퇴하고 종전의 미카와시마교회로 재건되었다. 동 교회는 1960년대 초 요츠야선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자치, 자립하는 지역교회가 되었다.

미카와시마교회는 개척 후 3년만인 1929년부터 교인 100명 이상이 출석하는 한인교회로 성장하였고, 한국교회와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였다. 동 교회는 한국인 사역자(목사 혹은 전도사 혹은 장로) 혹은 친 한국적 일본인 사역자(오다)의 치리로 한국교회의 특징인 ‘전도(부흥)집회’ ‘새벽기도회’를 정착시켰다. 반면 요츠야선교회와 재정과 인적 유대를 유지하며 그리스도의교회의 특징인 개교회의 자치권을 계승받아 교단체제에 반대하고, 재일 한인교단교회들의 연합체인 ‘재일

본조선기독교'나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기준으로 중시하는 교회가 되었다. 동 교회는 재일한인교회 연합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사역을 위해 타교단 한인교회(특히 연합공의회계 한인교회)와 복음사역에 협력하고 교류하였다.

접 수 일 (2019년 06월 30일)

수 정 일 (2019년 08월 08일)

게재 확정일 (2019년 08월 09일)